



유아 문화예술교육 학부모 연수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3~7세 유아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아빠, 엄마 예술 놀이터’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예술 놀이터는 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알아보고, 폭넓은 예술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놀이를 소개하는 체험형태로 진행됐다.



서구, 전기이륜차 활성화 업무협약

광주 서구가 최근 KT링크서 호남 본부, 광주오도바이협회와 2045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급속 성장함에 따라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매년 및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구와 기관들은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와 공유 배터리 충전소 설치 등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구는 공유 배터

리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홍보를 추진한다.

KT링크서는 공유 배터리 충전소 설치와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광주오도바이협회는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서구의 정책과 공유 배터리 충전소 이용 등을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공중전차 부스를 활용한 공유 배터리 충전소는 현재 풍암동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금호동과 쌍촌동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이광배·김영란 부부



박시평·호토홉 로텔라부에도 부부

전남농협 ‘9월의 새농민상’ 시상

신안농협, 이광배·김영란 부부

영암 삼호농협, 박시평·호토홉 로텔라부에도 부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9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이광배·김영란(신안군 안좌면) 부부, 박시평·호토홉 로텔라부에도(영암군 삼호읍) 부부가 선정돼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지칭하는 영예로운 명칭으로, 매달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이광배·김영란 부부(황소농장)는 1989년 농업을 시작해 현재 수도작, 마늘·양파 재배, 한우사육 등의 복합 영농을 실시하고 있는 선도농업인이다. 영농회장 및 각종 농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앞장서 왔다.

적극적인 농업교육 이수로 습득한 농업관련 신기술 및 친환경 영농기법을 지역농가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새농민으로 선정됐다.

박시평·호토홉 로텔라부에도 부부(용소농장)는 2007년 귀농해 수도작, 감·무화과 재배, 한우사육 등의 복합영농을 통해 자립경영을 달성한 선도농업인이다.

농업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최신농법 도입, 조사료 자가 생산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의 결과로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전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서홍 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바다와 섬 지키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 주력”

양동일 전남도 해운항만과 연안해운팀장

광역지자체 첫 도입 ‘1천원 여객선’ 시대 주도 섬 관광 활성화·정주여건 개선 정책 지속 추진

“이동권 확보와 문화 추구권 보장 등 바다와 섬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동일 전남도 해운항만과 연안해운팀장의 각오다. 양 팀장은 지난 1일부터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1,000원 여객선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전면시행으로 전남 섬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도내 1,320개 여객선 운항 전 구간을 이용 할 수 있게됐다.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게 될 주민만도 7개 시·군(목포, 여수, 고흥, 영광, 완도, 진도, 신안) 177개 섬 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는 2,165개의 섬(전국 3,352개의 64.6%)에 17만 3,794명의 주민이 터전을 두고 살고 있다.

섬 주민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육지에 비해 교통여건이 어렵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민하던 양 팀장은 ‘1,000원 여객선’ 사업을 기획해 지난 8월 한달간 시범운영에 나섰다.

양 팀장은 “1,000원 여객선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민들의 호응이 컸으며 원거리 섬 주민들은 전 구간 시행 요구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며 “당초 거문도, 흥도 등 원거리 구간을 포함한 도내 여객선 운항 전 구간에 대해 2022년 1,000원 단일요금제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9월로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00원 여객선은 육지 기준 가장 멀리 떨어진 목포-가거도(만재도), 여수-거문도 구간을 이용하는 섬 주민도 1,000원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의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양 팀장은 전남도가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펼치고 있는 생필품 구입·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여건 개선 사업도 앞장서 이끌고 있다.

생필품 구입 지원사업은 목포시 등 7개 시군 128개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전 품목을 부속도서로 운송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올해 2억 6,800만원이 투입되며 총 3만 5,858명이 혜택을 누린다.

또 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도서 지역 생활 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13억 8,000만원을 들여 8개 시군 164개 도서 2만 2,237가구를 지원한다.

양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연안 해운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일 반관광객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면서 “섬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섬 관광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길용현 기자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팔 건었다

광주보훈청-조선라이온스 업무협약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조선라이온스클럽과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조선라이온스클럽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의탁·독거 취약계층 보훈가족에 대해 연 27가구씩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조선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보훈가족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선우 기자



농협은행 광주본부, 의료진 격려물품 전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가 최근 코로나19 의료진 지원을 위한 홍삼진액 330박스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강형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김석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김석찬 영업본부장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예방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홍삼진액은 각 구별 선별진료소에 배송돼 의료진과 자원인력들에게 전달된다.

/우성진 기자

KT 전남·북광역본부, 환경정화 활동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최근 ESG책임경영의 일환으로 광주 풍암 호수공원에서 에코붓을 이용한 녹조제거 및 쓰레기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드론으로 촬영된 항공 영상을 바탕으로 수질오염원인 녹조 등을 찾아 좌표화하고 호수에서 자율주행증인 에코피스의 수질정화 로봇(에코 붓)에

게 오염원 위치를 전송하면 에코 붓이 오염원으로 이동해 녹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관계자들에게는 링크를 전송, 주요 활동들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해 기술자문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환경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본 길을 걸었다.

/오지현 기자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결론

▲조희석(초록산업 대표)·이계선씨 장남 준상군(조선대의대 공중보건과), 김용배(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염자순씨 차녀 효성양(한국전력공사 인사처)=11일(토) 오후 2시 제이아트컨벤션웨딩홀 1층 아모레몰.

알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분만 혜택과 상담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자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법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정신건강·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서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소용 분생시비용지원. 1577-8339, 국번없이 132.

▲조류유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점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11-9602-0111.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국번없이 1366.